



중 점 분 석

대 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분석 및 향후 전망

최 성 규/국별조사실 책임조사역

- I. 머리말
- II. 2008년 대 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 III. 중남미 주요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
- IV. 2009년 대 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 전망
- V. 맺음말

요 약

2008년 중남미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세계 FDI 규모가 15% 이상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한 1,28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7년 대비 미국발 금융위기, 자동차 산업 위축, 다국적 기업의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대외 여건은 악화되었으나, 3/4분기까지 이어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광산 및 석유 광구 지분 매입 활발 등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FDI의 상승기조는 유지되었다.

지난해 대 중남미 FDI의 특징을 살펴보면, 과거 주요 투자처였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멕시코,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 전통적으로 투자 유입이 많았던 국가에 대한 FDI가 주춤한 반면, 콜롬비아, 칠레, 베네수엘라 등 내수시장이 크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다. 투자국별로는 미국과 스페인 중심에서 캐나다,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등 자원개발 강국의 투자가 증가하였고, 과거 저렴한 인건비, 관세 특혜 등의 이유로 각광받았던 효율성 추구형 FDI는 주요 수출국의 경기침체, 관세 혜택 축소, 인건비 상승,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격화 등으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 중남미 FDI는 1/4분기까지 이어진 글로벌 경기침체, 투자 기업들의 영업악화 및 자금 조달 난항,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지연 등으로 인해 5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감소폭은 하반기 들어 세계 경제의 회복 조짐이 관측되고 있고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 연초의 전망보다는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I. 머리말

UN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¹⁾가 최근 발간한 『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이하 FDI) 규모는 2008년 들어 15% 이상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지역에 대한 FDI는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한 1,28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권별로 살펴볼 때, 세계 FDI 유입액의 60%를 차지하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 경제권에 대한 FDI 유입액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글로벌 기업들의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하였지만, 중남미, 아프리카, CIS 등 개도국에 대한 FDI는 2003년 이후 지속된 증가세가 유지되었다.

중남미 지역에 유입되는 국제자본 중 외국인투자는 해외송금, 민간대출,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공적개발원조 등 여타 외화수입원에 비해 유입 규모가 월등히 크며, 외채의 대체수단으로서 자본스톡 증가, 수출 촉진, 인프라 확충, 기업환경 개선 등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남미 지역에 대한 FDI는 1990년대 말까지 중남미 각국의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 기업간 인수·합병(M&A) 사례 증가, FTA 체결 확대 및 경제 호황 등에 힘입어 급속도로 증가해 오다가, 1998년 브라질 경제위기, 2001년 아르헨티나 외환위기 및 미국 9.11 테러, 2002년 브라질 금융위기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2003년까지 급락세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2004년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세로 반전하고 중남미 경제의 호황이 지속되면서 V자형 회복세를 시현하였으며, 2007년 이후 광물, 석유 등 국제 원자재와 농산물 가격 폭등으로 남미 국가에 대한 FDI 유입액이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8년에도 3/4분기까지 지속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남미 국가의 경기 호조 등으로 자원 확보형 및 시장 접근형 FDI 유입은 지속되었으나, 2008년 9월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총 증가세는 둔화²⁾된 것으로 나타났다.

1) ECLAC(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은 라틴아메리카 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8년 UN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로 창설되었으며, 매년 중남미 및 카리브 지역의 해외투자에 관한 권위 있는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음.

2) 1990년대말까지 세계 FDI 유입액 중 중남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였으나, 2004년과 2008년에는 각각 15%, 8%로 축소되었으며, 2008년 지역별 FDI 증가율은 아프리카 35%, CIS 24%, 중남미 9%, 아시아 2%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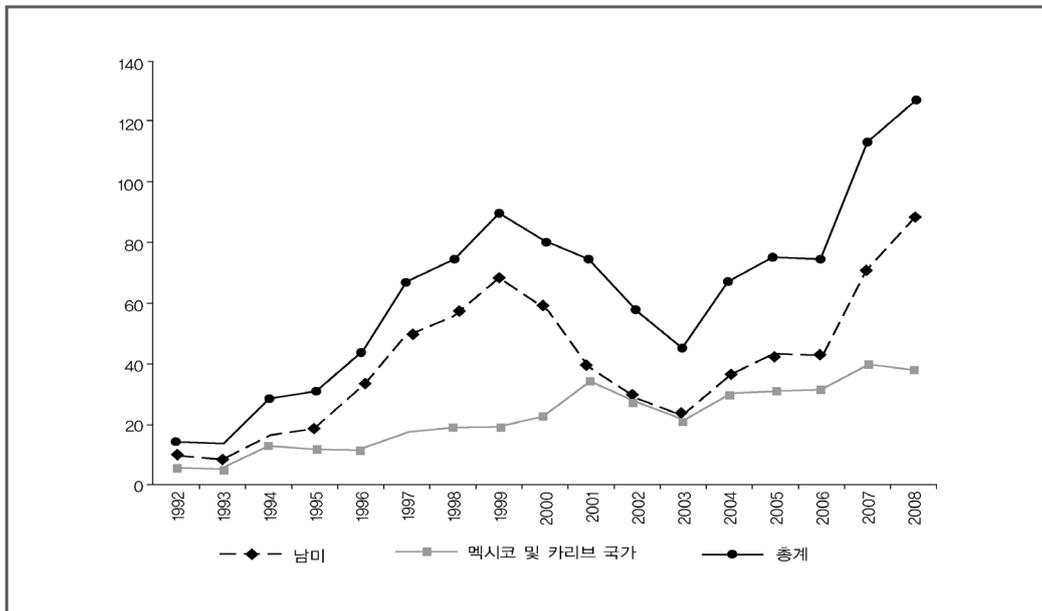


한편, 지난해 대 중남미 FDI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측된다. 우선 과거 중남미의 FDI 유치 순위 1, 2위를 다투던 브라질과 멕시코의 격차가 확대되어, 중미와 남미의 FDI 유입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났다. 또한,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자원 개발에 대한 FDI는 꾸준히 유입된 반면, 미국 시장 인접성 및 FTA 교두보 활용 등의 효율성 추구형(efficiency seeking) FDI는 약세를 보였으며, 브라질,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 국가의 역내 M&A가 역동성을 보인 시기였다.

금년도 FDI에 대해 전망해 보면, 상반기까지 이어진 세계 경기침체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멕시코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인해 중남미 관광업에 대한 FDI 유입이 크게 위축되고 있고, 내수 부진으로 자동차, 유통업 등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금년도 FDI 순유입액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 자원개발 FDI가 수년간 자금유입이 필요한 메가 프로젝트여서 2000년대 초와 같이 급락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그림 1〉 중남미 FDI 유입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ECLAC



이하 본고에서는 2008년 대 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특징과 주요국 및 업종별 동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중남미 국가의 해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 OFDI) 동향 및 2009년 FDI 전망 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Ⅱ. 2008년 대 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및 특징

1. 현황

지난해 중남미 지역에 대한 FDI 규모는 1,28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미국발 금융위기, 자동차 산업 쇠퇴,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세계 FDI 규모가 25% 이상 축소된 상황에서, 전년 대비 13% 이상 FDI 유입이 증가하고 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에서 8%로 높아졌다는 점은 과거에 비해 중남미의 경제 펀더멘탈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FDI를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멕시코와 중미·카리브 지역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자동차, 의류, 의료기자재 등 마킬라도라(보세가공업) 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고, 남미 지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등 자원 부국에 대한 투자와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 접근형 FDI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중미와 남미 지역에 대한 FDI 유입 규모는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남미 국가의 적극적인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2000년 들어서는 남미의 민영화 프로젝트가 급감하고 남미 주요국의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중미 지역에 대한 FDI 유입이 남미를 앞서 나가기도 하였으나, 2004년 들어 브라질, 페루 등 남미 국가의 경제호황이 본격화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FDI 유입 격차는 다시 벌어졌다.



〈표 1〉 중남미 지역별 FDI 순유입액 (1994~2008, 기간별 연평균액)

단위: 백만 달러

		1994-1998	1999-2003	2004-2008	2007	2008	증감율(%)
중미 카리브	멕시코	11,036	20,295	22,974	27,278	21,950	-19.5%
	파나마	708	565	1,756	1,907	2,402	26.0%
	코스타리카	417	545	1,372	1,896	2,016	6.0%
	엘살바도르	240	256	684	1,509	784	-48.0%
	도미니카(공)	368	980	1,605	1,579	2,885	83.0%
	소계	14,425	39,921	34,267	40,637	38,439	-5.4%
남미	브라질	14,139	22,109	26,328	34,585	45,058	30.0%
	칠레	4,051	4,936	10,552	14,457	17,083	16.0%
	아르헨티나	6,529	8,075	5,874	6,462	7,979	23.0%
	콜롬비아	2,784	2,068	7,907	9,049	10,564	17.0%
	우루과이	148	283	1,188	1,223	2,044	67.0%
	소계	34,657	43,365	57,297	72,520	89,862	23.9%
중남미계		49,082	68,860	91,564	113,157	128,301	13.4%

자료: ECLAC.

이러한 기조는 지난해에도 이어졌다. 우선 브라질은 2007년 사상 최대 규모의 FDI 유입 기록을 갱신한 이후 2008년에도 자원개발, 금융, 자동차 등의 분야가 집중 부각되면서 중남미 전체 FDI의 35%에 달하는 45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다.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인 칠레도 2002년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17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콜롬비아도 미국과 FTA 체결, 치안 개선, 석탄 및 원유 개발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1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남미지역에 대한 FDI 유입규모는 900억 달러를 기록하여, 지난해에 비해 무려 24% 이상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멕시코와 중미·카리브 지역에 대한 FDI는 멕시코의 부진으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멕시코는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아 서비스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FDI가 전년 대비 50% 이상 축소되어 2005년 수준인 220억 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중미 지역은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엘살바도르에 대한 FDI가 전년 대비 48% 이상 축소된



7.8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대부분 국가의 FDI가 증가하였고, 카리브 지역³⁾도 도미니카 공화국과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메가 프로젝트와 M&A⁴⁾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총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4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 이후 전체 FDI의 10% 수준을 유지해 오던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자원개발에 대한 FDI는 2007년을 기점으로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총 FDI 유입규모의 30%에 육박하면서 제조업의 FDI 비중을 따라 잡았으며, 실제로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에서는 자원개발 FDI 비중이 서비스와 제조업보다도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FDI는 통신업, 관광업, 금융업 등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과거와 유사한 50%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투자국별 지원동향 관련, 대 중남미 투자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네델란드, 일본 등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19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미국과 스페인이 중남미 FDI의 55%를 점하는 등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에는 두 나라의 점유율이 32%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자동차 산업과 금융업이 극심한 침체를 보이면서 영업환경이 악화되었으며, 스페인은 통신, 금융, 전력 등 기간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2000년대 중반까지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요 감소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최근에는 광업, 금융업 부문에 경쟁력을 보유한 캐나다의 선전이 두드러진다. 1990년대말 3% 수준이었던 캐나다의 대 중남미 FDI 점유율은 자원개발투자 확대(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Scotia은행 등 주요 은행의 영업망 확대 등에 힘입어 2008년에는 8% 수준까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의 ‘Multilatina(멀티라티나)⁵⁾’의 영업 확대로 중남미 국가간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 한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의 투자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3) 카리브 지역에 대한 FDI 규모는 미미하지만, 카리브 국가에서 GDP 대비 FDI 비중은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안티구아 바부다, 그레나다 등은 FDI가 GDP의 25%에 달하고, 도미니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가이아나 등도 GDP의 15%에 육박함. 이에 반해 칠레, 우루과이,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및 남미 국가들은 5~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4)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세계 최대 금회사인 캐나다의 Barrick Gold사가 Pueblo viejo 광산에 30억 달러 규모의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고,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는 캐나다의 Royal Bank가 현지 Rbtt Financial Holdings Ltd.를 21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음.

5) 중남미 다국적기업을 뜻하는 스페인어임.



2. 주요 특징

가. 자원개발에 대한 FDI 유입세 지속

지난해 멕시코와 아르헨티나의 FDI 감소, 주요 투자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 등 대내외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FDI가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가 큰 역할을 하였다. 비록 2008년 5월 중순부터 구리, 금, 은, 알루미늄 등 철광석을 제외한 주요 광물자원과 석유 및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세로 반전하였지만, 투자 금액이 증장기적으로 유입되는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성격상 2008년 말까지 FDI 유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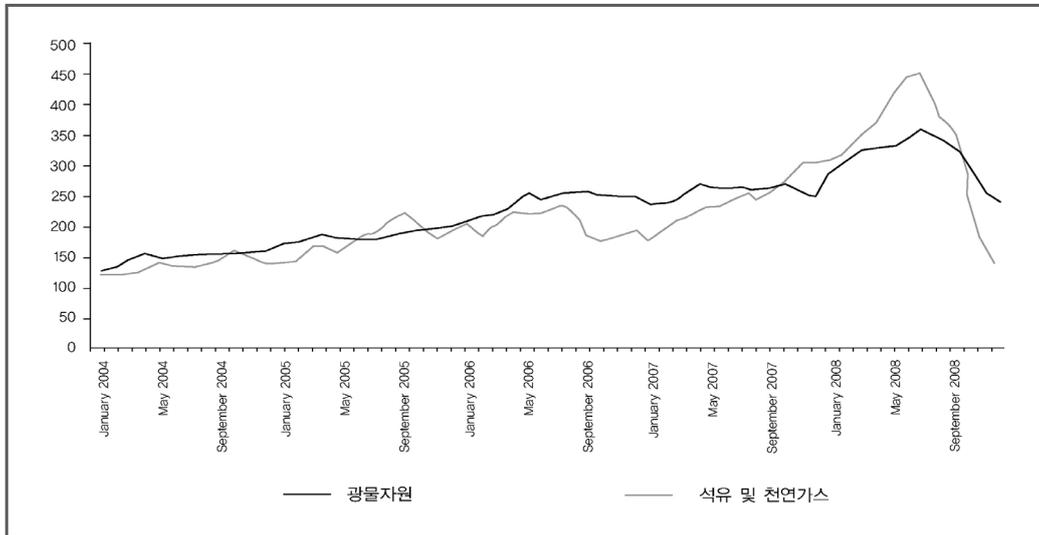
지난해 대 중남미 자원개발 투자는 규모면에서 광업, 석유 및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업에 대한 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캐나다계 Barrick Gold사와 남아공의 Gold Field사가 도미니카공화국과 페루의 금광산 개발에 각각 30억 달러와 5.5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캐나다의 Rusoro Mining사는 Gold Field사가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Hecla Mining사의 지분을 5억 달러에 인수하였다. 철광석 개발에서는 영국계 Anglo American사가 브라질 Iron X사의 지분을 35억 달러에 매입한 것과 한국의 Posco와 일본 Nippon Steel이 일본 상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브라질 CSN(Companhia Siderurgica Nacional)사의 자회사인 NAMISA(Nacional Mineraco S.A.)의 광산 지분 40%를 31억 달러⁶⁾에 인수한 것이 최대 프로젝트로 기록되었다. 한편, 구리 부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일본의 Marubeni Corp.가 칠레 Esperanza 광산 지분의 30%를 14억 달러에 매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초 투자하기로 하였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구리가격 폭락과 투자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2009년 이후로 연기되면서 투자 규모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와 천연가스 부문에서는 콜롬비아의 선전이 두드러졌는데, 캐나다 Pacific Rubiales사의 콜롬비아 Kappa Energy Holdings 지분 매입, 스페인계 CEPSA (Compania Espanola de Petroleos, SA)사의 카라카라 광구 투자 등에 힘입어 지난해

6) Posco는 Nippon Steel과 동일한 금액인 5억 544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6.48%를 확보하였음. 이는 Posco의 원료투자 사상 최대 규모이며, 내년부터 2011년까지 연간 약 100만~180만톤, 2012년 이후에는 연간 370만톤 이상을 NAMISA로부터 공급받게 됨. 컨소시엄은 Posco를 비롯해 Nippon Steel, JFE, 스미토모금속공업, 고베제강소, 닛신제강, 이토추상사 등 모두 7개사로 구성되었으며, Posco는 동 프로젝트의 효과로 철광석 자금률을 현재 14%에서 25%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그림 2〉 국제 원자재 가격 Index (2000년 100기준)



자료: ECLAC.

석유 부문에만 총 30억 달러(총 FDI의 35%)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또한 Carabobo 유전, Santos 유전 등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대규모 광구 분양에 BP, Chevron, Shell, Repsol, BG Group, Exxon 등 세계 석유메이저 회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원유 가격 회복시 지속적인 FDI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근 녹색성장으로 각광받고 있고 브라질, 페루 등 남미 국가의 경쟁력이 인정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에탄올과 풍력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어졌다. Destilaria Guaricanga, Santa Elisa Valley, Ventania, Koblitz 등 브라질⁷⁾의 바이오연료 생산업체들은 각각 Infinity Bio-Energy(영국), Amyris Biotechnology(미국), Martifer Renewables(포르투갈), Areva(프랑스) 등 다국적 재생에너지 기업에 인수되었으며, 다국적 전력회사인 미국의 AES사도 에탄올을 연료로 사용 가능한 브라질 발전소를 인수하였다. 풍력 에너지와 관련, 스페인의 Enhol사는 칠레의 Talnay 발전 단지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아일랜드 Mainstream Renewable Power사와 칠레 Andes Energy사간 조인트벤처도 칠레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13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멕시코에서도 세계 최대 시멘트 회사인 CEMEX와 스페인 최대

7) 브라질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에탄올 생산국가로서 전세계 에탄올 생산량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은 전세계 수출량의 77%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강국임.



전력회사인 Iberdrola 컨소시엄이 중남미 최대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1단계 사업에 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중남미 재생에너지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나. 효율성 추구(efficiency seeking)를 위한 FDI는 크게 위축

ECLAC은 다국적 기업의 대 중남미 진출전략을 지원동기별로 효율성 추구형(efficiency seeking), 자원 확보형(natural seeking), 시장 접근형(market seeking)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효율성 추구형 FDI는 현지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찾아 이윤을 극대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 중에는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각종 관세 혜택⁸⁾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멕시코와 중미, 카리브 국가들에, 업종별로는 자동차, 전자, 의류, 의료기자재 등 많은 FDI가 유입된 바 있다.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멕시코를 위시한 효율성 추구형 FDI는 브라질을 대표로 하는 시장 접근형 FDI에 비해 수출산업 구조 재편, 생산 능력의 변화⁹⁾ 등에서 높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 취임 이후 친시장주의 경제 정책, 원자재 가격 상승, 고용 상황 개선 및 물가 안정 등에 힘입어 브라질의 내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2007년 하반기 이후 미국 경제 침체 지속으로 멕시코와 중미 지역 투자기업의 영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현재는 시장 접근형 투자를 추진한 다국적 기업의 성적표가 월등한 상황이다.

2008년 멕시코·중미 지역의 제조업 부문에 대한 FDI는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감소하였다. 멕시코는 2007년 120억 달러에 달했던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61억 달러를 기록하여 49% 이상 급감하였으며,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제조업에 대한 FDI가 각각 52%, 20%, 23% 이상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효율성 추구 FDI인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¹⁰⁾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까지는 미국의 경기 호조, M&A

8) 미국은 멕시코, 중미 5개국 및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카리브국가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9) 자동차산업의 경우, 2000년대초 브라질은 남미 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로 생산설비가 오히려 과잉투자된 양상을 보였고 부가가치가 낮은 소형차 위주의 생산체계를 구축한 반면, 선진국 수출형 멕시코 자동차산업은 높은 설비 가동률에 고가위주의 다양한 모델의 자동차를 생산하였음.

10) 멕시코에는 세계 굴지의 23개 자동차 회사가 진출해 있으며, GM(General Motors), 닛산(Nissan), 폭스바겐(Volkswagen) 등 3개사가 전체 생산량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확대, 내수 시장 호황 등으로 생산대수가 100만대에서 190만대까지 증가하면서 집중적인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에는 중국 등 아시아 기업과 경쟁 격화,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생산 증가율이 연평균 2~4% 수준에 그치면서 FDI 유입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지난해 멕시코 자동차산업에 대한 FDI 유입 규모는 전년 대비 50% 이상 축소된 9억 달러에 그쳤으며, 2009년 FDI 전망도 미국의 경기침체, 메이저 기업의 조업 중단 및 고용 감축¹¹⁾, 생산 및 수출 규모 감소(전년 대비 40% 이상) 등으로 그리 밝지 않은 편이다.

〈표 2〉 2008~09년중 멕시코의 지역별 자동차 수출 현황

지역·국가	수출대수				증가율(%) ('09.7/'08.7)
	2007년	2008년	2008년 1~7월	2009년 1~7월	
북 미	1,372,657	1,288,119	733,015	457,642	-37.5
중 남 미	101,301	121,162	67,188	42,873	-36.1
아 시 아	12,098	35,976	20,662	6,538	-68.0
유 럽	194,744	213,754	135,976	67,844	-50.0
기 타	12,513	2,383	1,718	664	-61.0
총 계	1,613,313	1,661,391	958,559	575,561	-39.9

자료: 멕시코 자동차협회(AMIA).

다. 중남미의 해외직접투자 및 역내 M&A 사례 증가

중남미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도 증가하고 있으나, 중남미 국가의 OFDI도 최근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남미의 해외투자를 주도하는 기업인 Multilatina는 미국 및 세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통신업, 광업, 시멘트, 석유화학, 식음료, 유통업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11) 지난해 GM, Chrysler, Ford 등 3개 회사의 해고 노동자수만 2,500명에 달함.



〈표 3〉 중남미 국가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 가	2004	2005	2006	2007	2008
아 르 헨 티 나	676	1,311	2,438	1,465	1,503
브 라 질	9,807	2,517	28,202	7,067	20,457
칠 레	1,563	2,183	2876	3,830	6,891
콜 롬 비 아	142	4,662	1,098	912	2,158
멕 시 코	4,432	6,474	5,758	8,256	686
베 네 수 엘 라	619	1,167	2,076	2,237	2,757
엘 살 바 도 르	-53	113	-26	100	65
코 스타 리 카	61	-43	98	263	6

자료: ECLAC.

중남미 100대 기업 중 85개 기업이 몰려 있는 멕시코와 브라질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권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등 대부분 국가들은 중남미 역내가 주요 투자처이다. 유통업에 강점을 보유한 칠레의 경우 남미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페루와 브라질에, 콜롬비아는 브라질, 파나마, 멕시코 등에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남미 다국적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OFDI 자금의 역내 유입은 최근 중남미 지역의 FDI가 꾸준히 증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난해 중남미 지역에서 역내 국가간 성사된 M&A건은 11건, 금액은 40억 달러에 달하였다. 멕시코는 경기침체와 주요 다국적기업인 Telmex(통신), America Movil(통신), CEMEX(시멘트) 등의 영업 실적 둔화로 M&A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브라질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는 석유 및 철강, 유통, 의류,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투자를 추진하였다. 지난해 중남미 국가간 최대 M&A건은 트리니다드토바고의 주류 회사인 Angostura사가 자메이카의 럼(Rum) 제조사 Lascelles사를 8.3억 달러에 인수한 것으로, 캐나다 Royal Bank의 트리니다드토바고 Rbtt Financial Holdings사 인수(30억 달러)에 이어 카리브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M&A건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칠레의 유통업체인 Censosud사는 페루의 최대 유통업체(시장 점유율 62%)이자 백화점, 은행



까지 소유한 Grupo de Wong을 6.2억 달러에 인수하였으며, 브라질 철강기업 Gerdau는 멕시코 Corsa의 지분 49%를 1억 달러에 매입하고 향후 4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여 제강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전문가들은 금년에는 어려운 대외여건 및 영업 환경으로 인해 중남미 역내 M&A가 다소 주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반전, 내수 시장 및 건설업 회복 등의 영향으로 중남미 국가의 OFDI의 증가와 더불어 자원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4〉 중남미 국가간 주요 M&A 사례 (2008)

투자 시기	인 수		피인수		투자금액 (백만달러)	분야
	회 사 명	국 가	회 사 명	국 가		
08년 투자완료	Angostura Holdings	트리니다드토바고	Lascelles De mercado	자메이카	830	물류
	Censosud	칠 레	Grupo de Wong	페 루	623	유통
	Gerdau	브 라 질	Corsa controladora	멕 시 코	101	철강
	Ecopetrol	콜롬비아	K2 Oil Block	멕 시 코	510	석유
	Minsur S.A	페 루	Mineracao Taboca	브 라 질	474	광물
	Coca-Cola	멕 시 코	Refrigerantes Minas Gerais	브 라 질	364	음료
	Votorantim	브 라 질	Cia Minera Atacocha	페 루	145	광물
	Indura SA	칠 레	Cryogas	콜롬비아	139	제조
08년 투자계획 발 표	Petrobras	브 라 질	Esso Chile petrolera	칠 레	400	가스
	Vale do Rio Doce	브 라 질	Mina de Carbon	콜롬비아	300	광물
	Grupo Casa Saba SA	멕 시 코	Drogasmil Medicamentos e Perfumaria	브 라 질	113	의약

자료 : ECLAC.



Ⅲ. 중남미 주요국의 FDI 유입 현황 분석¹²⁾

1. 브라질

2008년 브라질에 대한 FDI 순유입액은 대 중남미 FDI의 35%에 육박하는 45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대표적인 급증 원인은 철광석 등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증가였다. 2007년 32억 달러를 기록하였던 철광석 개발에 대한 FDI는 지난해 전년 대비 230% 이상 증가한 10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업과 농수산업을 포함한 자원개발 FDI는 전년 대비 160% 증가한 1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편, 제조업 부문은 농가공, 석유화학, 금속공업, 전자 및 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전년 대비 15% 증가한 140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에 대한 FDI는 전력, 수도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업과 건설업의 부진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160억 달러에 그쳤다.

〈표 5〉 2008년 대 브라질 FDI 투자국 및 업종별 순위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투 자 국	금 액	투자업종	금 액
1	미 국	7,047	철 강	10,644
2	룩셈부르크	5,937	금 융	5,713
3	네델란드	4,639	금 속	4,984
4	일 본	4,099	식 품	2,226
5	스페인	3,851	부 동 산	1,721
6	프랑스	2,856	자 동 차	1,640
7	캐나다	1,438	석 유	1,637
8	호주	1,153	건 설	1,385

자료: 브라질 중앙은행.

12) 중미 및 카리브, 남미 국가 중 투자규모가 크고 FDI 유입 증가율이 높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 5개국을 집중분석하였음.



투자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철강, 유통, 자동차 등에 투자를 확대한 결과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70억 달러를 기록, 1년 만에 브라질 최대 투자국 자리를 탈환하였고, 룩셈부르크는 브라질 철강업체인 ArcelorMittal Inox사를 16억 달러에 인수하고, 노르웨이 London Mining사가 보유한 브라질 광업회사 지분을 매입하는 등 다양한 투자 활동을 보여 투자 규모가 60억 달러에 육박하였다. 한편, 2007년 대 브라질 투자 1위를 차지하였던 네델란드는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투자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였던 일본은 CSN의 지분 인수에 30억 달러를 투자한 데 힘입어 투자 순위가 4위로 급등하였다.

2. 멕시코

멕시코에서 FDI는 원유수출 수입(약 500억 달러), 해외근로자송금(251억 달러, 이하 2008년 기준)에 이어 제3위의 외화수입원으로서 경제성장 및 외환보유액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멕시코는 2001년 시티 그룹의 멕시코 최대은행 Banamex 인수, HSBC의 Bital 은행 인수 등 금융부문의 대규모 M&A 성사, 자동차 부문에 대한 그린 필드형 FDI 확대 등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인 297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나,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 각종 개혁정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해 투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 멕시코 FDI는 에너지개혁법안 통과,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구리, 은, 아연, 천연가스 등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침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하였다. 제조업에 대한 FDI는 2007년 120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자동차, 전자, 의류 산업 등에 대한 미국 수요 감소로 지난해에는 63억 달러로 크게 축소되었고, 과거 멕시코 FDI를 주도해 온 금융업도 프랑스 최대 보험회사인 AXA의 멕시코 ING 인수(15억 달러), 스페인계 Criteria Caixa사의 Grupo Financiero Inbursa 인수(26억 달러) 등 2개의 M&A건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외국자본 유입이 없어, 전년 대비 38% 감소한 41억 달러에 그쳤다. 이에 반해 2006년에 총 투자 금액의 2%대 수준이었던 광업 및 석유·천연가스 등 자원개발¹³⁾에 대한 FDI는 2007년 6.4%, 2008년 19.8%(43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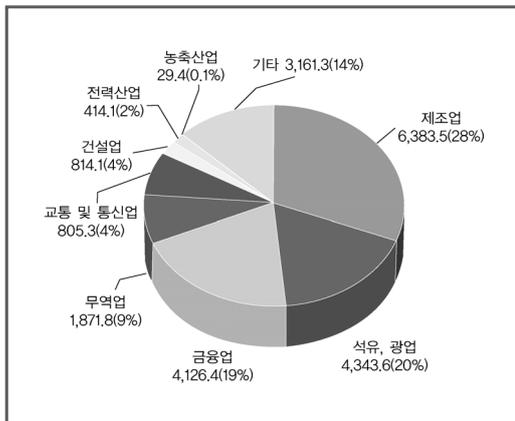
13) 멕시코는 은(세계 2위), 구리(세계 4위), 석유(세계 17위), 아연(세계 5위), 카드뮴(세계 7위) 등 지하 자원이 매우 풍부한 국가이며, 국제 광물 가격 폭등 이후 자원개발 투자 유망처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음.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의회를 통과한 에너지개혁법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석유 및 천연가스, 전력 등에 대한 외국 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추후 투자가 확대될 여지는 많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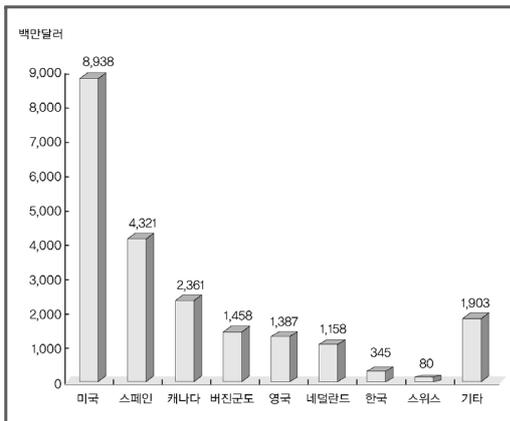
국가별로는 한때 총 FDI의 75%까지 차지했던 미국의 위상이 크게 축소되었다. 지난해 미국의 대 멕시코 FDI 규모는 약 85억 달러로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총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반면 자원강국인 캐나다는 지난해 6.5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3배 이상 투자를 확대하여, 단숨에 미국, 스페인에 이어 대 멕시코 3위 투자국으로 뛰어 올랐다. 마지막으로 투자 지역별로는 멕시코시터를 포함한 멕시코주가 전체 FDI의 50%(119억 달러) 수준을 차지하였고, 이어 자원프로젝트가 많은 바하 캘리포니아 주(14억 달러), 국경 제조업 중심 지역인 소노라 주(11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2008년 부문별 FDI 현황 (백만 달러, %)



자료: 멕시코 투자청.

〈그림 4〉 2008년 대 멕시코 투자국 현황



3. 칠레

칠레는 안정된 정치 및 경제상황, 개방화된 경제구조, 풍부한 지하자원과 인프라 구축 등을 근간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우수한 투자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칠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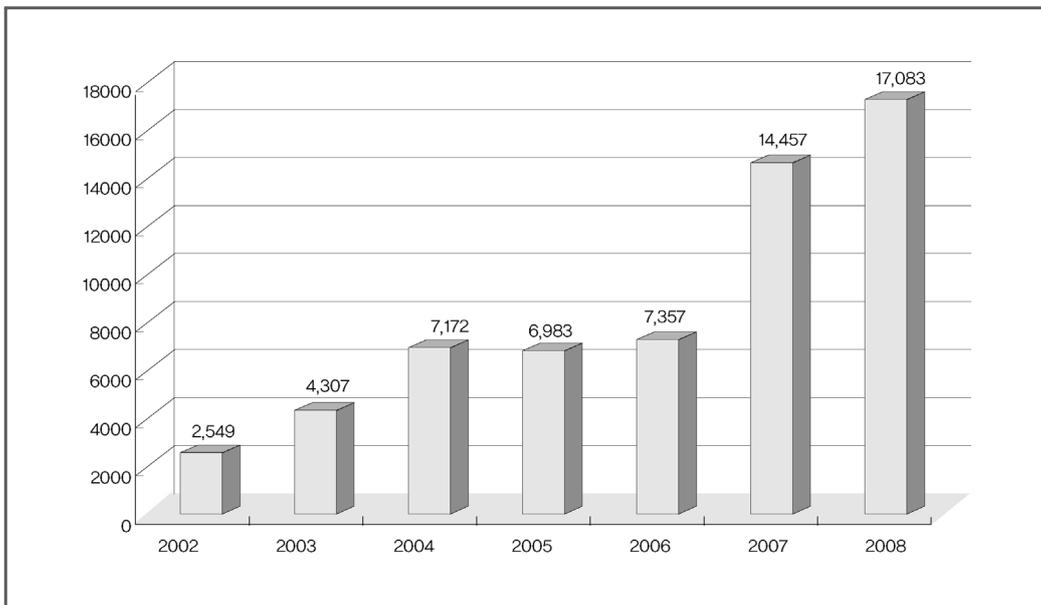


대한 FDI는 2002년 이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2년 20억 달러 수준이던 FDI 유입액은 지난해 170억 달러¹⁴⁾를 돌파하여 중남미 제2위 FDI 유치국인 멕시코와 격차를 40억 달러 이내로 줄였다.

칠레의 전통적인 주력 투자 유치 부문은 구리, 리튬, 요오드 등 광물자원¹⁵⁾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개발 분야이며, 1974년 이후 광업 부문에 누적된 투자금액은 총 447억 달러로 전체 FDI의 39%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상당수의 메가 프로젝트들이 구리가격 급락,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으로 취소되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까지 이어진 구리 가격의 폭등과 과거 추진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유입의 영향으로 FDI 금액은 70억 달러(전체의 46%)에 육박하였다. 광업을 제외한 업종별 순위는 전력 및 가스(26%), 운송 및 물류(8%), 금융업(6%) 등의 순이었으며, 투자국별로는 캐나다, 스페인, 미국, 멕시코, 벨기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1997~2008년중 대 칠레 FDI 유입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ECLAC.

14) 대 칠레 FDI 통계는 UN 라틴아메리카·카리브위원회와 칠레 투자청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칠레 투자청은 지난해 총 FDI 유입액을 120억 달러로 발표한 바 있음.

15) 칠레는 구리 이외에 리튬, 질산염, 요오드도 세계 최대 보유국(매장량 기준)이고 몰리브덴도 세계 3위임.



주요 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스페인 최대 통신회사 Telefonica사는 칠레 CTC Telefonica를 15.8억 달러에 인수하였고, 캐나다 Scotia 은행은 칠레의 여신 순위 7위 은행인 Banco del Desarrollo¹⁶⁾의 지분(79%)을 매입하여 칠레의 금융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또한 스페인의 건설회사인 Abertis사는 지난해 칠레 고속도로 사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전력 부문에도 영국과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졌다. 2009년 칠레에 대한 FDI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중남미 여타 국가에 비해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미국의 Wal-Mart가 칠레의 유통업체인 D&S사의 인수(36억 달러)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제 구리 가격의 회복조짐¹⁷⁾에 힘입어 세계 최대 광산 보유기업인 BHP Billition사는 지난해 연기했던 67억 달러 규모의 광산개발 프로젝트 재추진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아울러 칠레 광업진흥공사(Codelco) 역시 그간 미루었던 광산 프로젝트 발주를 개시할 것으로 보여, 2010년부터는 대칠레 FDI는 광업 부문을 중심으로 재차 증가세로 반전할 것으로 보인다.

4.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2002년 우리베(Alvaro Uribe)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부채 축소 및 물가 안정, 금융부문 강화 및 민영화 추진 등 각종 개혁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마약퇴치 및 게릴라 소탕 작전 성공으로 치안이 안정되면서 투자 환경이 급속도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반군 세력의 약화로 내륙지방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석유, 광물 등 자원개발¹⁸⁾을 중심으로 FDI 유입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 콜롬비아 FDI 유입액은 전년 대비 16.7% 증가한 10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지난해에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제조업, 금융업, 전력 및 상수도 등에 FDI 유입이 감소한 반면, 광업 및 석유 개발, 운송 및 물류, 유통업 등 대부분 업종에서 FDI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자원개발 부문은 2007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16) 동 은행의 자산규모는 51억 달러이며 칠레에 총 74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음. 반면, 캐나다 Scotia 은행은 여신 기준 칠레 10위를 기록중임.

17) 2008년 파운드당 1.3달러까지 하락했던 구리 가격은 2009년 7월 현재 세계 경제 회복 조짐, 세계 구리 재고량 감소 등으로 인해 2.4달러까지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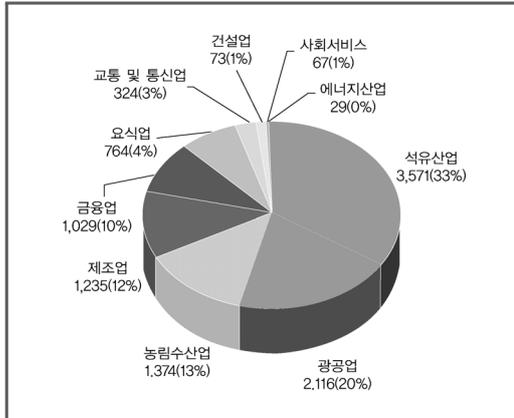
18) 원유확인매장량은 15억 배럴로 중남미 6위의 산유국이나, 투자 자원 부족으로 전 국토의 20%만을 탐사한 상태여서 향후 개발 잠재력이 매우 큼. 단기간내 추가 유전이 개발되지 않을 경우 2010년 이후 석유 순수입국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로 인해 우리베 정부는 외자유치를 통한 원유 및 천연가스 광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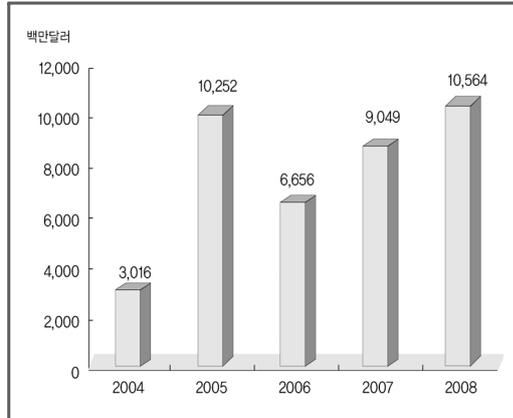
있으며, 총 FDI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 투자 유치산업으로 발전하였다. 광업의 경우 미국의 Drummond사가 Descanso Norte 석탄 광산 개발을 위해 15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 데 힘입어 전년 대비 92% 이상 증가하였고 석유 개발 부문은 스페인 Cepsa사의 Caracara 광구¹⁹⁾ 매입(9.2억 달러), 캐나다 Pacific Rubiales Energy의 Kappa사 인수(1.7억 달러) 등의 영향으로 FDI 유입액이 사상 최대치인 35억 달러에 달하였다. 또한, 운송 및 물류, 농수산업, 건설업, 상업 및 요식업 등도 각각 80%, 67%, 54%, 28% 이상 FDI가 증가하였으나, 제조업과 금융업은 미국 경기 침체, 신용경색, 미국과 FTA 체결 지연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각각 26%, 6% 이상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콜롬비아에 대한 FDI는 주요 투자국²⁰⁾인 미국, 파나마, 스페인 등의 경기 회복 지연으로 투자 규모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석유 및 광업 부문에 대한 FDI의 지속적 유입²¹⁾, 하반기 미국-콜롬비아 FTA 의회 통과 가능성 등으로 감소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6〉 2008년 부문별 FDI 현황



〈그림 7〉 대 콜롬비아 FDI 유입 현황



자료: 콜롬비아 투자청.

19) 동 광구의 크기는 4.7만 헥타르로 콜롬비아 중부에 위치한 Los Llanos 유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정 매장량은 40백만 배럴(20만 b/d)로 추정되고 있음. 지분구조는 스페인 Cepsa 70%, 콜롬비아 석유공사 (Ecopetrol) 30%로 구성되어 있음.

20) 2008년 국가별 투자 비중은 미국이 전체의 33%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조세피난처인 Anguilla (24%), 파나마(14%), 스페인(11%), 멕시코(8%), 영국(4%), 브라질(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1) 2009년 5월까지 자원개발에 대한 FDI는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2억 달러를 기록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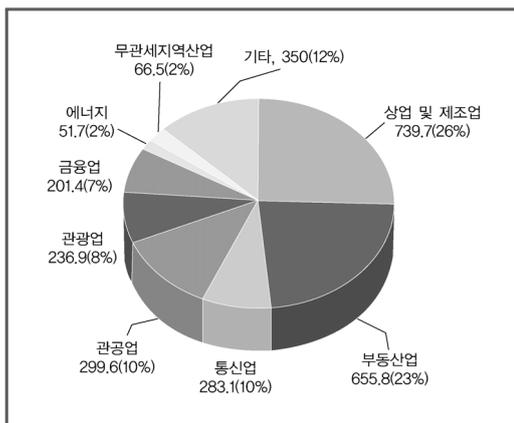


5. 도미니카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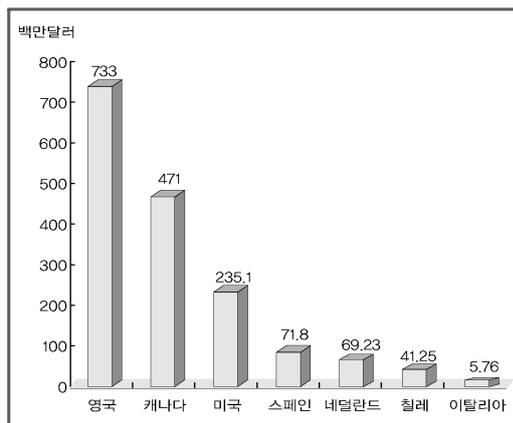
도미니카공화국은 2003년 국내 3위 은행인 Baninter의 파산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으나, 2004년 페르난데스(Leonel Fernandez) 現대통령 취임 이후 친시장적인 경제정책 추진, 관광업 호황,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등으로 경제가 회복세로 반전하여 2007년에는 중남미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경제상황 호전과 미국과 FTA 체결(2006년 발효)이라는 투자 호재로 인해 2003년 이후 FDI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도미니카공화국은 자원개발, 식음료, 금융업 등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FDI 순유입액이 사상 최대치인 2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광업 부문에서는 캐나다 Barrick Gold사의 Pueblo Viejo 광산 개발프로젝트 투자자금이 유입된 데 힘입어 FDI 규모가 5배 이상 증가하였고, 금융업에 대한 투자도 Scotia 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의 영업망 확대로 전년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유통 및 식음료 부문에서는 지난해 영국계 Edirington Group이 도미니카공화국의 대표적인 주류 회사 Brugal사의 지분(83%)을 4억 달러에 인수한 데 힘입어 FDI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여 부문별 최대 투자업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FDI 유입처인 부동산,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 관광업, 전력산업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국가별로는 Brugal 인수에 힘입어 영국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자원개발에 대한

〈그림 8〉 2008년 부문별 FDI 현황



〈그림 9〉 2008년 대 도미니카공화국 투자국 현황



자료: 도미니카공화국 투자청.



투자 확대로 캐나다가 미국을 따라잡고 2위로 올라섰다. 반면 전통적인 투자국인 미국과 스페인은 자국 경제상황의 영향으로 투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IV. 2009년 대 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망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 중남미 지역에 대한 FDI는 2009년에는 상반기까지 이어진 글로벌 경기침체, 투자 기업들의 영업악화 및 자금 조달 난항,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지연 등으로 인해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감소 폭은 연초의 전망보다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9년 초반 중남미 경제에 대한 전망은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매우 비관적이었다. 경제호황을 주도했던 자원개발 부문은 구리, 금, 석유,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이에 따른 투자 지연으로 생산량이 급감하였고, 고용불안에 따른 실업률 증가 및 소비 부진으로 내수 시장은 크게 위축되었으며, 수출도 4월까지 평균 30% 이상 감소하였다. 아울러 멕시코에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관광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미국 경기 침체에 따른 해외근로자 송금마저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중남미 지역의 장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상반기를 벗어나면서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한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내수 시장이 회복²²⁾ 기미를 보이면서 대부분 경제전문기관들은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소폭 상향조정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완만한 회복 기조를 보이자 국제 원자재 시세도 지난해의 급락 폭을 서서히 만회하고 있다. 2008년말 30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국제 원유가격(서부 텍사스 중질유 기준)은 금년 8월에 73달러까지 상승하였으며, 구리, 금, 아연, 니켈, 주석 등도 연초 대비 2~3배 이상 국제시세가 오른 상태이다. 이와 같이 중남미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주요 수출 광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대 중남미 FDI도 4월 이후 회복세로 반전하였다. 그러나 지난해에 중남미 대부분 국가에서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았던 것에 비해, 금년 상반기에는 과거 수년간 투자가 위축되었던 자동차,

22) 지난 6월 브라질의 수퍼마켓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표 6〉 중남미 주요국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국 가	2007년	2008년					2009년	
		연간	1/4	2/4	3/4	4/4	1/4	연간 전망
중 남 미	5.7	4.6	5.1	5.2	4.6	1.0	-2.8	-2.1
브 라 질	3.3	5.1	6.1	6.2	6.8	1.3	-1.8	-1.2
멕 시 코	4.7	1.4	2.6	2.9	1.7	-1.6	-8.2	-7.1
칠 레	4.7	3.2	3.6	4.1	4.1	0.2	-2.1	-1.0

자료: Global Insight, EIU.

금융업, 금속가공 등의 분야에 투자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메이저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잠시 위축된 사이 중견 다국적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별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2009년 1/4분기까지 FDI 유입액이 전년 대비 40% 이상 감소하였던 브라질은 4월 이후 자동차, 금속, 화학 분야에 투자가 유입되면서 상반기까지 총 FDI 규모가 127억 달러를 기록하여 FDI 감소폭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내로 축소되었다. 또한 멕시코는 신종 인플루엔자 악재로 인해 상반기 신규 투자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였으나 제조업과 금융업을 중심으로 FDI가 꾸준히 유입된 결과 총 FDI 감소폭이 5%이내에 그쳤다. 콜롬비아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투자 급감(전년동기 대비 57% 감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석유 개발 프로젝트가 중단 없이 추진되면서 FDI 감소폭은 13% 이내로 줄어 들었다.

중남미 FDI 상위 5개국²³⁾에 대한 상반기 FDI 유입 결과를 분석해 보면, FDI는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5% 정도 감소²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00년 초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등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30% 가까이 FDI가 급락한 때와 비교할 때 양호한 수준이다. 선진 경제권 국가의 추가적인 경제회복 여부, 기업들의 영업환경 및 실적 개선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브라질, 칠레, 페루 등에서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국가

23) 지난해 중남미 FDI 상위 5개국은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등임.

24) ECLAC은 2009년 5월 연간 중남미 FDI가 전년 대비 35~45%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그러나 4월 이후 FDI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상반기 주요국의 FDI 감소폭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주도의 광구 및 광산 분양도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 자원 개발 부문을 중심으로 FDI가 빠르게 회복²⁵⁾ 될 것으로 전망된다.

V. 맺음말

중남미 지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구조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선 2003년 420억 달러였던 중남미 FDI 유입액은 지난해 1,283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로 양적으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과거 주요 투자처였던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유입은 자원개발 부문으로 이동하였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 전통적으로 투자 유입이 많았던 국가에 대한 FDI가 줄어든 반면, 콜롬비아, 칠레, 페루 등 신흥자원부국에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투자국별로는 미국과 스페인 중심에서 캐나다, 네델란드, 룩셈부르크 등 자원개발 강국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과거 저렴한 인건비, 관세 특혜,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 교두보 등의 이유로 각광받았던 효율성 추구형 FDI는 주요 수출국의 경기 침체, 관세 혜택 축소, 인건비 상승,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격화 등으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 투자 기업들의 영업악화 및 자금 조달 난항,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투자 지연 등으로 규모 측면에서는 FDI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언급한 업종별·국가별 투자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 중남미 FDI 규모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배경으로 투자 매력도가 크게 향상되었지만, 향후 중남미 지역에 대한 FDI가 중남미 경제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국내 산업과의 연관효과를 높이고 기술 이전을 확대할 수 있는 투자 유치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 투자 사례를 보면 수출 주도형 FDI의 경우 대부분 수출자유무역지대(Zona Fraca)에 집중되고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형 산업에 집중

25)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적어 수출과 관광업에 의존도가 높은 중미와 카리브 지역은 미국 경제의 본격적인 성장 지원, 신종 인플루엔자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FDI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되어 있어, 국내 산업과의 연관효과 및 기술 이전 등의 효과가 미미하였다. 이에 따라 멕시코와 중미 지역의 수출주도형 국가의 경우, 내륙 지역²⁶⁾과 자국 산업공단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IT, 녹색산업 등 기술집약적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내 산업과의 연관성을 높이고 고용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원개발 중심의 FDI와 관련, 광구 및 광산에 대한 지분 인수 등 M&A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투자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국내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은 광물이나 농산물 가공 분야에 대한 그린 필드형 FDI를 동시에 유치하여 자원개발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FDI 동향을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해외투자²⁷⁾는 효율성 추구형 FDI에 주력해 왔으며, 주요 교역상대국 및 역외금융시장 중심으로 투자를 넓혀 나갔다. 멕시코, 브라질, 파나마 등 3개국과 케이만군도, 바하마 등 역외금융시장²⁸⁾에 전체 투자자금의 80%가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최근 FDI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비중은 총 중남미 투자의 10%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주도형 FDI와 병행하여 내수시장이 크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를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한편, 업종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IT, 녹색산업 등 첨단기술산업 유치를 희망하고 단순한 광산 개발보다는 금속 공업, 철강 산업 등 자원가공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선호하는 중남미 국가들의 니즈(needs)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²⁹⁾, 타이어, 전자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있는 부문에 대한 시장 접근형 FDI의 확대 노력도 현시점에서는 주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다국적 기업의 사업 전략을 이해하고 중남미 각국별 투자 유치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근 선진 경제권으로부터 FDI가 주춤해진 상황을 중남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K**

26) 멕시코와 중미의 수출자유무역지대는 대부분 국경지역이나 해안가에 유치해 있음.

27) 2009년 3월까지 우리나라의 대 중남미 해외투자 규모는 97억 달러(전체 해외투자의 약 7.8%)를 기록하였고, 2008년에도 페루와 브라질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16억 달러(전체 해외투자의 약 7.4%)에 달하였음. 그러나 2009년 1/4분기 투자실적은 2.7억 달러 수준에 그쳤고 전체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4%에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8) 케이만군도, 바하마 등 카리브 연안국을 지칭할 때, 투자자금의 성격에 따라 역외금융센터(financial center), 조세피난처(tax heaven)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역외금융센터로 지칭코자 함.

29)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브라질에 자동차 공장설립을 발표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로 투자를 연기하였음.



〈참고문헌〉

1. 곽재성, “라틴아메리카 외국인 직접투자의 효과 : 멕시코와 브라질의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월간 중남미 정보, 2005.3.
2. 김진오 외, “칠레의 주요 산업: 농업, 수산업, 광업, IT”,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08-06, 2008. 12, 30.
3. 중남미자원협력센터, “중남미 에너지자원 동향 Vol 2”,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2009. 5.
4. CAINCO, “Inversi n Extranjera en Bolivia - An lisis 2009”, *Economía*, Junio 2009.
5. CEI-RD, “Comportamiento de la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en la República Dominicana 2007-2008”, Centro de Exportación e Inversión de la República Dominicana (<http://www.cei-rd.gov.do>)
6. Chudnovsky, D. and López, A.,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evelopment: the MERCOSUR experience”, *CEPAL Review*, August 2007.
7. ECLAC,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UNCTAD/UNDP Meeting on Development Program, 1999.
8. _____,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08
9. Leonardi A., et al, “La inversi n Extranjera Directa: Argentina y América Latina”, *Análisis Mensual*, Fundaci n Libertad, Julio 2009.
10. ProExport Colombia, “Inversi n Extranjera en Colombia: Primer Trimestre 2009”,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de la República de Colombia (<http://www.proexport.com.co>)
11. _____, “Invierta en Colombia : Trabajo, Compromiso, Ingenio”, 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de la República de Colombia(<http://www.proexport.com.co>)
12. ProsperAr, “Informe Anuncios de Inversión 2008”, Agencia Nacional de Desarrollo de Inversiones(<http://www.prosperar.gov.ar>)
13. The Working Group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the Americas, *Foreign Invest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essons from the Americas*, Heinrich Böll Foundaion North America, May 2008